

# 연구소 소식

## 2013년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월 29일(화) 오전 10시,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에서 2013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신정부 육아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본 포럼은 유관 학회 및 단체, 공공기관 등 33명의 대표로 구성된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운영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20여명의 네트워크 위원들을 비롯하여 발표 및 토론자, 원내 박사급 연구직이 참석한 가운데 본 연구소 장명립 기획경영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소 이영 소장은 ‘신정부 육아정책 진단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의 육아정책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고 새정부의 육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집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였다.

토론에는 숙명여자대학교 송기창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였으며,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장,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전략연구소장,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정욱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김명순 한국아동학회 회장, 서영숙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회장, 정미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회장이 토론을 펼쳤다. 지정토론 종료 후에는 오찬과 함께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있었다.

## OECD 전문가 초청 육아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OECD가 한국사회에 권고한 유아교육·보육 정책 방안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세부 실천과제 및 제한점 등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지난 2월 6일 OECD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OECD 전문가로는 교육국 수석분석가인

Ms. Miho Taguma, 고용노동사회국 참사관인 Mr. Alessandro Goglio, 경제국 한국담당관인 Mr. Randall Jones가 참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OECD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한국 코디네이터인 덕성여자대학교 신동주 교수, 건국대학교 염지숙 교수가 참석하였다. 또한 원내에서는 이영 소장, 장명림 기획경영실장을 비롯한 연구직 3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코디네이터의 일원인 본 연구소 장혜진 부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 Miho Taguma는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본 연구소 문무경 미래육아정책개발센터장, 최윤경 동향분석통계팀장, 신동주 교수가 발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월 14일(목)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협의회에는 본 연구소 이영 소장과 장명림 기획경영실장, 김은영 연구기획팀장, 최은영 누리과정연구팀장이 참석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성원으로는 회장에



재임 중인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이수복 원장을 비롯하여 대구의 김병태 원장, 서울의 이순이 원장 등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장 8명이 참석하였다.

이영 소장과 부산의 이수복 원장의 인사로 시작된 본 회의는 장명림 기획경영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이 날 회의에서 육아정책연구소와 유아교육진흥원 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 평가 추진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향후 육아정책연구소는 본 네트워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 및 전달체계 관계자들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제2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1월 23일(수)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 이어 2월 27일(수)에 보건복지부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보건복지부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하여 2012년에 수행한 연구과제를 보고하고, 연구소 설립 이후 보건복지부가 연구소에 수탁한 과제 목록,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연구소가 수행한 수시과제 목록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2013년에 수행할 기본과제와 일반과제 목록과 각 과제별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밖에 연구소가 수행해 주기를 원하는 과제가 있으면 연구소에 요청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부처에서 요청하는 과제는 2013년 연구과제의 내용에 반영하거나 추후 수시과제로 수용할 예정이다.

## 제5차 누리과정 발전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월 28일(목) 오전 7시 30분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5차 누리과정 발전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영 소장은 인사말에 이어 2012년도에 열린 1~4차 누리과정 발전포럼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다.



주제발표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이경자 상임대표, 울산광역시보육정보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전국시도보육정보센터협의회 박초아 회장이 맡았다. 이경자 상임대표는 누리과정 도입의 긍정적인 면과 개선 사항과 더불어 도입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분석하였으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육아휴직 확대, 직장어린이집의 지역 내 공유, 학부모 교육 의무화 등을 제시하였다. 박초아 회장은 5세 누리과정에 이어 3, 4세 누리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부모 차원에서는 누리과정 관련 가정연계 프로그램

마련, 다양한 채널을 통한 부모 대상 홍보 강화 등을 제안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을 제안하였다.

제6차 포럼은 4월 4일 오후 4시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리며, '누리과정 운영 평가방향 및 지표', '기존 유치원 평가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과의 연계방안'이라는 두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소집단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2013년 제1차 육아지원정책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13일(수)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차 육아지원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돌봄 자유선택의 현실과 한계'를 주제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다영 교수가 발제를 하고 이에 대해 인하대학교 소비자동학과 이완정 교수, 본 연구소의 유해미 육아지원연구팀장이 토론하였다.